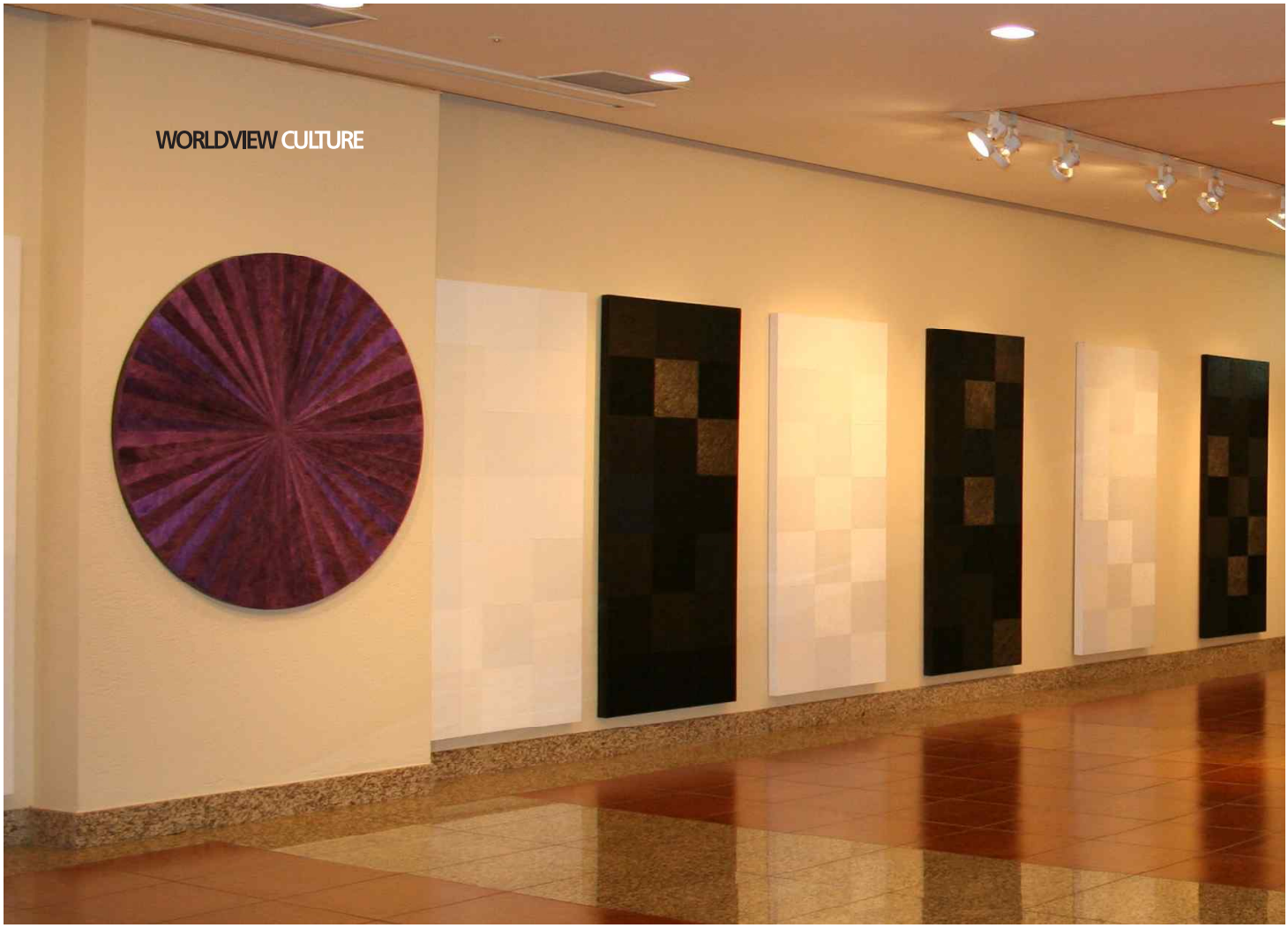

광야와 빛의 화가 최상현

말씀(Logos)으로 시대를 넘어서다

오의석

대구 동촌의 도심을 벗어난 외곽, 공군 비행장의 시멘트 블록 담장을 한참 돌아서 팔공산 자락 명당마을이라는 이름의 동네 가운데 화가 최상현의 새 작업실이 있었다. 작업실은 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본가의 축사를 개조한 공간으로 소박하고 따뜻했다. 수장고의 진열대에는 최근의 대작들이 층층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작가가 조심스레 보여준 작업장 뒤편 허름한 건물에서는 몇 트럭 분량의 옛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그 엄청난 작업의 양에서 최상현이 타고난 화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1995년 '광야'의 연작으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최상현은 작년까지 열한 번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전시는 지역을 넘어서서 서울의 유수한 화랑과 미술관의 초대로 이루어져 왔다. 그는 비중 있는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고, 2006년에는 이인성 미술상 청년작가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최상현이 작가로서 갖춘 내외적 성취는 늘 세인들의 주목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통과한 광야의 여정과 새롭게 눈뜬 '빛'에 대한 조형적 탐색이 얼마나 힘겨운 작업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최상현

1969 대구 출생,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육대학원 졸업. 국내외 개인전 12회(대구문화예술회관, 금호미술관, 가나아트 스페이스, 학고재, 인터불고갤러리 등)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신조미술대상전 대상, 창작미술협회 공모전 금상, 제6회 이인성미술상 청년작가상(2006) 수상

'광야'에서 '빛'으로

최상현을 오랫동안 '광야'의 작가로 기억해 왔다. 지금도 그의 작품 '광야'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광야의 연작들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청년기를 보내었는지를 말해 준다. 한 프랑스의 미술평론가는 '물감의 파편들'이란 제목의 평문에서 그 광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약 빛의 세계의 혼돈에서 솟아오르는 작가들이 있다면 최상현은 분명히 그들 중에 한 명임이 분명하다. 삶과 감정의 격동은 그의 작품의 기관 속에 흐르고 있다. 마치 동·식물의 혹은 인간들의 혈맥과도 같이, 작가는 작품 속에서 핏빛 같은 번득임, 석탄의 광맥, 밀도 높은 농도, 유연히 흘러내리는 먹의 엷은 흐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뮤리엘 까르보넷트, 파리개인전 평문, 1997년)."

Light Colors, 직경 120cm, 캔버스에 아크릴

Light Red,캔버스에아크릴, 2007년 제작, 55x176cmx12개

광야는 모든 인생들이 거쳐 가는 곳이다. 청년 예술가들은 스스로 광야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며 그곳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 최상현에게 광야는 어디였을까? 일찍이 믿음을 가진 청년작가로서 미술계의 작업 현장은 곧 광야였고, 그곳에서 견디며 살아남는 일이 광야의 체험이 아니었을까? 그는 작업의 주제로 선택한 광야를 10년 넘게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끝이 있었고, 결국 그는 '빛'을 만난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3)' 이처럼 빛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있게 되었다. 빛은 모든 창조 작업의 근원이다. 빛이 없다면 형태와 색채는 인식될 수 없다. 물론 표현과 감상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술의 역사는 빛과 깊은 관련을 맺어왔고 지금도 빛은 작업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이다.

최상현의 '빛' 작품을 처음 접한 것은 2004년 갤러리 예술사랑의 초대전시에서였다. 놀라운 변모였다. 광야의 격정과 열기가 차분히 가라앉고 질서와 절제,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 단색조의 정사각 평면들이 격자로 반복 구성된 화면 위에 선묘의 흔적을 따라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그 빛을 은은히 반사하고 있었는데 감상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따라 화면 위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최상현은 빛을 그리지 않는다. 빛을 화면 위에 담아낸다. 그의 고안은 특별하다. 아크릴물감에 광택을 더하기 펄(pearl)을 혼합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방향을 달리하는 반복된 묘법에 의해 질감의 효과를 살린다. 그는 나이프를 사용한 스크래치(scratch)의 방법으로 화면에 질감의 깊이를 더하여 빛의 반응을 보다 강화시킨다. 스크래치 된 각 면의 깊이와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색상이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감상자의 움직임과 빛의 개입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Light Red,캔버스에아크릴, 2007년 제작, 55x176cmx12개

말씀으로 시대를 넘어서기

최상현은 현대조형의 양식을 존중하며 즐겨왔다. 그리고 미술계는 현대의 양식과 화해를 이루고 있는 그의 작업을 주목해왔다. '광야'의 연작에 나타난 열기는 뜨거운 추상이라고 불리는 추상표현주의 범주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빛'의 연작들은 미니멀(minimal), 모노톤(mono-tone), 광선예술(light art)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양식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현대와 구별된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조형의 양식들은 말씀에 대한 고백적인 진술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을 구별하는 키워드는 광야와 빛이라는 작업의 주제이다. 그것은 작가가 말씀에 대해 반응한 결과로 나타난 작업들이다. 최근의 작품에서 작가는 붉은색의 점이적 화면 12개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한다. 원형으로 방사되는 '빛' 작품의 중심축에는 교차하는 십자형이 자리한다. 그가 즐겨 선택하고 있는 청색과 적색, 자색은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의복색과 무관치 않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라색, 죄와 순결을 상징하는 흑색과 백색의 사용도 신 ·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그의 형상 이미지는 궁극적인 지향이 말씀임을 보여준다.

최상현의 작품 '광야'와 '빛'은 말씀에 대한 조형적 묵상이고 기록이다. 그의 작업은 형태를 통한 말씀의 탐구이며 형상을 통해 말씀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다. 그의 현대적인 작업은 시대와 소통하는 방식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형상을 통해 말씀과 소통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추상 이미지인 '광야'와 '빛'의 진원지는 곧 말씀이며, 그 형상이 목표하는 곳 또한 말씀이다. '광야'에서 '빛'으로, 최상현은 형상을 통해 말씀에 다가서기를 시도한다. 그 결과 시대의 미술정신을 이기고 넘어선다. 우리는 그의 작업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빚은 오늘의 이미지를 만난다.

오의석 조각가.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대구가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MF 지도교수로도 활동중이다. 개인전 8회(서울, 대구, 부산, 휘트웨인, 연길), 메사이어대학 초대 조각 2인전(2004), I.F.A 미술전 참가(중국 곤명,199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 대구미술의 오늘전(2004) 등에 출품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미술(공저) 』, 논문으로는 '성경적 조형관', '현대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부활의 조형' 등이 있다.